

보상부터 생활까지... 보험업, 일상 플랫폼 진화

보험 브리핑

삼성화재
신규광고 교통문화 편
9일만에 500만회 조회

가입·이용·보상 전 주기 디지털화
젊은층·고령층 접근성 동시 공략

캐롯, 여행 준비 등 일상형 서비스
라이나생명, 24시간 종신보험 가입
약사, 고령층 배려 간편모드 도입

보험업계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
축으로 직판(D2C) 확대와 청구·보상
간소화, 생활형(예방·관리) 서비스까지
품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.
가입·이용·보상 전 주기를 앱 안으로
끌어 들이고 젊은 고객 유입과 고령층
접근성 강화란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
한 움직임이다.

보험사들은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
고객 여정을 바탕으로 앱 내 추천·설계
를 정교화하고 있다. 상품은 보다 유연
하게, 보상은 더 간편하게 재설계하는
추세다.

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
험은 지난 7월 기준 모바일 앱 가입 회
원 100만명을 달성했다. 월간활성이용
자(MAU)는 45만명, 일간활성이용자
(DAU)는 9만명을 기록했다. 가입자
구성도 40대 이하 비중이 약 60%로 젊
은층 기반이 두드러진다.

캐롯손보는 ▲주행데이터 기반 운전
습관 개선(드라이브) ▲보험 안전·건
강관리 결합(굿워크) ▲여행 준비·안전



라이나생명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 이미지.



라이나생명 약사손해보험 홈페이지·모바일 앱 전면 리뉴얼 이미지. /약사손해보험

관리(굿트래블) ▲차량관리(키케어) ▲
주차 교육(주차스쿨) 등 보험 미가입자
도 쓸 수 있는 일상형 서비스를 전면
내세워 '사고 이후 보장'에서 '사고 이
전 예측·예방'으로 역할을 넓혔다. 생활
형 접점이 자동차·여행자보험 등 핵심
상품의 간편 가입, 유연한 보장 설계,
신속한 보상 프로세스와 결합해 앱 이
용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평가다.

캐롯손보 관계자는 "보험과 안전습
관생성 서비스를 함께 성장시켜온 결
과 앱이 많은 고객의 일상 속 필수 도
구로 자리잡았다"고 설명했다.

라이나생명은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
(다이렉트료채우는종신보험)을 선
보이면서 인터넷을 통한 빠르고 편리
한 가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. 장기보
장 상품의 디지털 직판에도 속도를 내

는 포석이다.
남성 60세 이하, 7년납 기준으로 경
과기간에 따라 7년 시점 99.9%, 10년
119.5%, 15년 130.5%, 20년 142.4%의
환급률을 제공한다. 가입 가능 연령을
20~70세로 넓히고 전화상담 없이 24시
간 완전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
도록 설계했다. 특히 신용카드·카카오
이·토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도 지
원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편의성을 강
화했다.

라이나생명은 "해당 상품은 당사 최
초의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"이라며 "디
지탈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
능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짧은 기간
납부하고 오랜기간 보장받을 수 있다"
고 밝혔다.

약사손해보험은 PC·모바일 웹·앱

어디서든 동일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하
는 '원 소스 멀티 유즈(One Source Mu
lti Use)' 전략을 적용해 브랜드 경험의
일관성을 높였다.

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화면·동선
재구성이 두드러진다. 메뉴는 ▲상품
▲보상 ▲MY ▲혜택 등 고객이 자주
찾는 항목 위주로 재배치했다. 사진 등
록·계약 조회·보험금 청구·긴급출동 등
핵심 기능을 '바로가기'로 묶어 원클릭
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. 특히 고령층
을 고려한 '간편모드'를 도입하고 보상
페이지 상단에 청구 버튼을 배치했다.

약사손보는 "이번 홈페이지·모바일
리뉴얼은 고객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
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
된 것"이라고 전했다.

/김주형 기자 gh471@metroseoul.co.kr

삼성화재는 신규 광고 영상 '삼성화
재가 바꾼 교통문화 편'이 지난 8월
18일 공개 후 9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
500만회를 넘어서는 등 고객들에게 호
평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.

이번 광고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교
통문화 정착을 위해 삼성화재가 추진
해 온 다양한 활동을 한 주인공의 인생
여정 스토리로 전달하고 있다. 특히 광
고에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 연구소
가 우리나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
진해 온 주요 사례들을 '안전이 당연한
세상, 삼성화재가 꿈꾸는 세상'이라는
함축적인 광고 카피로 표현했다.

또한 광고 속 주인공의 패션 변화, 2
G 폴더폰, 종이지도, CD와 테이프 등
당시의 소품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
아들어 2000년대 감성을 섬세하게 담
아내어 고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.

NH농협생명 100세까지 암치료 보장 치료비안심해2NH보험

NH농협생명은 3일 100세까지 암치
료 보험금을 보장하는 신상품 '치료비
안심해2NH건강보험'을 출시했다.

해당 상품은 최초 암 발생 이후에 매
년 1회 암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
계됐다. 특히 재발·전이·타원발암 발생
시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장
기 치료 과정에서 고객의 경제적 부담
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.

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시에는 1구
좌당 5000만원을 보장해 고액 치료에
도 대비할 수 있다. 현재 세브란스병원
이후 2027년 서울대병원, 2031년 서울
아산병원 도입 예정으로 국내 주요 병
원에서 해당 치료가 가능하다.

한화손보 펠테크연구소 뉴년기 트렌드 리포트 하프 시그널 첫 공개

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(LIFE
PLUS) 펠테크연구소는 3일 김난도 서
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끄는 트렌드코
리아팀과 함께 '뉴년기(new+갱년기)
트렌드 리포트'의 첫 번째 시리즈 '하프
시그널(Half Signal)'을 공개했다.

이번 리포트는 갱년기를 단순한 호
르몬 변화로 한정하지 않고 인생 절반
 즈음에 올리는 새 출발 신호로 해석해
'뉴년기'로 이름했다. 갱년기를 삶의
방향을 다시 짜는 전환점으로 봤다는
설명이다.

이번 리포트는 남녀 갱년기 경험자
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결과
를 기반으로 했다. 총 4부작으로 기획
된 '뉴년기트렌드 리포트'는 올해 하반
기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. 갱년기에 대
한 사회적 태도 변화와 신체·정신 건
강, 관계의 재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
게 다룰 예정이다. /김주형 기자

저축은행 자산 순위 재편... SBI저축은행 '1위' 탈환

SBI 상반기 총자산 규모 14.2조
OK 13.1조, 한국투자 8.5조 순

저축은행 자산 순위가 한 분기 만에
재편됐다. SBI저축은행이 OK저축은
행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
다.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위 자리를 유
지해 톱3 구도가 굳혀질 지 관심이 쏠
리고 있다.

3일 경영공시에 따르면, SBI저축은
행의 상반기 총자산 규모는 14조2042
억원으로, 지난 1분기 말 대비 7969억
원 증가했다. 반면, 같은 기간 OK저축
은행은 4869억원 감소한 총자산 13조
1744억원을 기록했다.

한 분기 만에 SBI저축은행이 업계 1

위 자리를 탈환했다. 앞서 OK저축은
행은 지난 1분기 말 13조6612억원의 자
산을 기록하면서 12년 만에 1위 자리에
올라선 바 있다.

하지만 SBI저축은행이 신규고객 확
보를 위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며 상
황은 금세 역전됐다. SBI저축은행은
지난 4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
0.2%포인트(p) 인상했다. 특히, SBI
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뱅
킹 플랫폼인 사이다뱅크 예금 금리는
최대 3.2%까지 올렸다. 이에 따라 상
반기 기준 SBI저축은행의 총수신은 11조
7580억원을, OK저축은행은 10조 9773
억원을 기록했다. 공격적인 고객 확보
로 SBI저축은행은 1분기 대비 수신 잔

액이 7544억원 증가한 반면, 상대적으
로 고객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OK저축
은행 수신잔액은 5961억원 줄면서 격
차가 벌어졌다.

한국투자저축은행도 3위 자리를 지
키면서, 업계 상위 구도가 굳혀지는 모
양새다. 올해 2분기 한투자저축은행의 총
자산은 8조5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
비 1617억원 감소했다. 그럼에도 불구
하고 10년째 업계 3위를 유지하고 있
다. 당기순이익은 92억원으로, 전년 동
기 대비 46억원 증가했다.

한편, 대형 저축은행들은 호실적을
이어가며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
운데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자산 규모
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고전을 이어

가고 있다.

대표적으로 CK저축은행의 경우 총
자산이 지난해 1분기 4조5148억에서
올해 1분기 3조6154억원으로 약 1조
원 가량 줄어 들었다. 드림저축은행 역시
같은기간 4조2099억원에서 3조3080억
원까지 총자산이 감소하면서 외형이
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다.

업계 관계자는 "대형 저축은행은 부
실채권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
하면서, 외형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
소형 저축은행은 상황이 다르다"며 "예
금자보호한도 상향률 대형 저축은행
에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존
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"고 전
망했다. /안재선 기자 wotjs4187@

美 금리인하 가능성에 금값 연일 경신... 3600달러 목전

국제 금 선물, 온스당 3592.2달러
2거래일 연속 '신고기' 기록

금(金)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
경신하며 3600달러를 목전에 뒀다. 트
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준을 향한 금
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, 미국
의 고용 지표 둔화 전망에 따라 조기 금
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.
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의 종전 협상
도 불발해 금 수요를 뒷받침했다.

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
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일(현지

시간) 트로이온스(31.1g, 약 8.1돈)당
3592.20달러(약 501만원)에 장을 마쳤
다. 직전 거래일보다 76.10달러
(2.16%)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
에 다시 경신했다. 특히 이날 장중에는
금값이 온스당 3602.3달러까지 올라
3500달러를 넘긴지 하루 만에 3600달
러를 넘겼다.

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가 미
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를 향한 압박
을 강화하는 가운데, 오는 9월 연방공
개시장위원회(FOMC) 이후 금리 인하
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

있어서다.

트럼프는 지난달 25일(현지시간) 리
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
사기 혐의로 해임했다. 바이든 대통령이
지난 2022년 임명한 쿡 이사의 임기
는 오는 2038년까지로, 연준 이사가 해
임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최초
다. 쿡 이사는 즉각 해임 무효 소송을
제기했지만 트럼프는 쿡 이사의 후임
을 공공연히 지명하는 등 연준에 대한
압박을 강화하고 있다.

시카고상품거래소(CME) 페드워치
에 따르면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오

는 17~18일 개최되는 FOMC에서 기준
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86.41%로 전
망한다. 이는 지난 7월 말 전망치인
37.66%와 비교해 48.75%포인트(p) 높
다. 또한 오는 12월까지 금리가 50bp
(1bp=0.01%p)이상 인하될 것이란 전
망도 86.39%에 달한다. 7월 말 전망치
는 40.16%였다.

3일(현지시간)부터 잇달아 발표되는
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전망도 금값 상
승을 부추기고 있다. 종전 협상 불발 이
후 다시금 격화하는 우크라이나-러시
아 전쟁도 금 수요를 끌어 올렸다.

전문가들은 금값의 강세가 당분간
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.

/안승진 기자 asj1231@